

# “법당에서 찬불가 부르며 군생활에 활력 찾았으면”

군법당에 노래방기기 보급 (주)금영 김홍영 전무

“장병들이 법당에 와서 찬불가를 부르며 군생활에 활력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노래방에서도 찬불가를 부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와 본사가 주관하는 ‘2006년 군포교 합시다’ 캠페인에 찬불가 노래방기기 보급에 동참하고 있는 (주)금영 CEO 김홍영 전무는 평소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고 있는 찬불가가 일상에서 많이 불려지지 않는 것이 안타까웠다. 그래서 지난해 창작 찬불가를 보급하고 있는 좋은벗 풍경소리와 찬불가 대중화를 위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찬불가의 음원을 받아 사내의 음향연구소에서 찬불가를 노래방에서 부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음원 변환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까지 범패 의식곡과 창작 찬불가 등 120여편의 찬불가를 반주 음악으로 변환했다.



보급하게 되었습니다.”

김 전무가 군법당에 나름대로 애착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원찰이 바로 특전사 군법당인 호국 사자사이기 때문이다.

천주교 신자였던 김 전무는 우연한 기회에 호국 사자사 군법사였던 김민재 3군단 법사와의 인연으로 지난해부터 매주 법회에 참석하고 있다. 지난해 가을 호국 사자사에서 열린 산사음악회에 금일봉을 보시하는 등 군법당 활성화에도 힘을 보태고 있다.

“주말에 법당 가는 것 이외에 아직까지 불교에 대해 모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불서를 구입해 시키는 대로 읽고 가까운 대원불교대학 같은 교양대학에 등록해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워보고 싶습니다.”

김 전무는 부처님오신날 전후로 해서 일반 노래방에서도 찬불가를 부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고 있다. 우선 찬불가를 최대한 반주하기에 삽입하고 홍보물을 제작해 노래방에 찬불가도 부를 수 있다는 것을 알릴 계획이다.

(주)금영은 국내 노래방 반주기기 분야 1위 기업. 현재 전국 노래방 음원제공 뿐만 아니라 CJ 케이뷰넷 및 다양한 방송매체를 통하여 보다 쉽게 간편하게 노래방을 체험할 수 있는 등 음악과 관련된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두식 기자

## “신나는 노래로 신심배가 군생활의 또다른 힘”

“노래방기에는 앰프와 스피커, 마이크 등이 하나의 기기에 포함되어 있고 이동이 쉬워서 법회나 사찰 경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행사 이외에도 신도들의 화합을 위해서 사찰 노래방을 운영해도 좋을 듯 합니다.”

김 전무는 2월 9일 국방부 호국 원광사에서 있었던 ‘찬불가 노래방기기 전달식’에 참석하지 못해 아직도 가슴이 아파다. 풍경소리와 함께 1년여 동안 작업한 120여곡의 찬불가 (재)보덕학회의 후원으로 6대의 노래방기기에 삽입되어 군법당에 보내지는 뜻 깊은 자리였는데 회사 업무상 참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군법당에 웬 노래방기기가요 반문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젊은 불자들이 찬불가를 많이 불러야 불교의 미래가 밝아지지 않겠습니까? 종교시간만이라도 흥겨운 찬불가를 부르며 신심을 배가하면 힘이 절로 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군대라는 생소한 환경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장병들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군법당에 우선

# 흥겨운 리듬에 맞춰 “우리는 한마음”



## 한마음선원-제3군수지원사령부 공동 호국삼마사 ‘한마음음악제’ 성황

“불자님들과 우리는 둘이 아닌 한마음입니다.”

호국 삼마부대 장병들의 뜨거운 함성소리가 울려 퍼졌다.

현대불교신문과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2006 군포교합시다’ 캠페인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한마음선원과 제3군수지원사령부(사령관 김민조)가 장병들을 위한 음악회를 공동으로 개최해 화제가 되고 있다.

‘생명 사랑 나눔 보시 햇살마루 병영을 위한 호국삼마사 한마음음악제’가 2월 26일 젊은 불자 장병들과 한마음선원 청년회, 신도 등 800여명이 삼마강당을 가득 메운

가운데 진행했다.

이날 한마음음악제는 상임법사가 없는 가운데 방문지도법사 역할을 해온 안양 한마음선원 청보 스님이 50탄약대에서 매년 개최해온 선법가(노래를 통한 관법) 경연대회를 올해부터 사령부차원의 행사로 확대하면서 처음 열린 것.

청보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장병들과 함께 손과 마음을 모아 만든 행사”라며 “음악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도와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날 장병들의 가장 큰 환영을 받았던 무대는 역시 ‘7공주’.

한마음선원 청년회 조서연씨를 비롯한



삼마부대장병들과 한마음선원 청년들의 한마음음악제는 군포교의 새로운 전형을 제시했다. 사진은 청년회 회원들의 빙고댄스 모습.

여범우 7명이 감직한 ‘7공주’로 분장, 발랄한 율동으로 장병들의 가슴을 녹였다. 거사림회의 합창, 청년회의 빙고댄스, 난타공연도 열렬한 박수를 받았다.

장병들이 직접 준비한 무대도 빛났다.

50탄약대대 댄스동아리 ‘오도방정’ 락밴드동아리 ‘베수로’는 이름부터 웃음이 나올 정도로 재기발랄했다. 이날 음악제를 위해 한 달 동안 맹연습에 몰두했다는 이들은 젊은이다운 패기와 용기로 강당을 뜨겁게 달궜다.

댄스팀 정영준 상병은 “조금 긴장은 되지만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며 “어머니가 절에 다니시길 하지만 불교에 대해 잘 모른다”고 말했다. 그러나 “불교도 이렇게 재미있는 행사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환하게 웃었다. 장병들은 2시간 반 동안 진행된 공연을 모두 관람하고 한마음선원 신도회에서 정성들어 준비한 도시락으로 점심 공양을 했다.



한마음선원 청년회 회원들은 신명나는 난타 공연으로 장병들의 흥을 돋구었다.

조용수 기자 pressphoto@buddhapia.com

## “군포교는 ‘사람방생’의 기회”

interview 제3군수지원사령관 김문조 장군



관 김문조 장군(사진)은 행사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장병들과 함께하는 친근한 모습을 보였다.

이번 한마음음악제 개최에 큰 힘이 되어준 김 사령관은 어릴 적부터 할머니의 손에 이끌려 수많은 절을 찾다 냇을 만큼 불교와 깊은 인연 속에서 성장했다. 그는 고등학교 때부터 불교학생회에서 활동했고 요즘도 매일 하루 일과를 삼마사 법당에서 예불과 108배로 시작할 만큼 불심이 깊다.

김 사령관은 “흥겨운 노래와 춤으로

장병들의 사기를 북돋운 계기가 된 음악제였다. 불교가 정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 것 같아 더 좋았다. 그동안 보아왔던 평범한 사찰의 산사음악회보다 몇 배나 더 의미 있는 행사라고 생각한다”며 동참 소감을 밝혔다.

또, “군포교에 대한 관심이나 활동이 이전에 비해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라며 불교계의 군포교 활동과 관련한 평소의 견해를 드러내기도 했다.

김 사령관은 “교구본사 같은 큰 절에서 많은 인원이 동참하는 ‘방생법회’의 기회가 전국의 군부대에 널리있다. 부모님 같은 보살님, 거사님들이 동참해 장병들이 부처님 법과 인연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그보다 더 큰 공덕을 쌓을 기회가 있겠는가. 군포교는 고귀한 ‘사람방생’의 기회다. 젊은 장병들이 군에서도 불교를 접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조용수 기자

## 누구나 동참할 수 있어요

### ■어떻게 진행되나

“2006 군포교 합시다” 캠페인은 ‘군법당-사찰-기업(학교·불교단체 포함)’을 하나로 연결,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군법당 후원체계를 갖추도록 군포교 활성화를 이끌어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군장병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등 미래불교의 씨앗을 심는 소중한 불사로 추진됩니다. 종단, 사찰, 기업, 단체, 학교, 개인 등 누구나 동참이 가능합니다.

### ■어떻게 동참하나

- ▷결연: 사찰-군법당-기업을 연결.
- ▷군법회 위문: 소외된 군법회를 위한.
- ▷군법당 건립 후원: 낡은 군법당 재건, 신축 지원.
- ▷정기적 물품 전달: 군법당, 군법자에 후원품 전달.
- ▷법사 지원: 법사 없이 진행되는 군법회를 지원.
- ▷동참 및 문의: 조계종 군종교구 (02)797-7266
-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02)2004-8291
- ▷후원 계좌안내: 006-25-0023-989 (국민은행,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477401-01-092896 (국민은행, 예금주 군종특별교구)

만인등참 ARS : 060-700-0108 당신의 후원이 군불교를 살립니다

## 포항, 흥해, 칠포 대원사 성지순례

신비의 상징, 길상의 상징, 불법을 수호하는 신 용, 인도에 사는 용 종족들이 숭배하는 신화의 용 대한민국 최초로 거대한 용을 조성 하였습니다. 용의 배속에 천불천불 부처님이 타고 계시며 용의 몸통속에 삼천불 부처님을 봉안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최초 최대의 용이 탄생하였습니다.

◆ 이곳방생지 - 칠포해수욕장. 보경사는 15분거리

용의크기 : 넓이 2미터, 높이 2.5미터, 길이 108미터

「중국에 가서야만 탈 수 있는 용, 우리나라에서도 탈 수 있습니다」

사바세계 일체중생은 신비의 용을 친견 함으로써 번뇌 망상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일체중생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고 관세음보살님 42수 진언의 소원 성취를 증득하실 길장이 바로 칠포 대원사 성지순례입니다. 전망은 푸른바다와 들란, 뒤로 수려한 명산이 병풍처럼 둘러 싸인 곳. 이곳이 바로 성지순례의 궁극, 길지라 하옵니다.... (용꿈 꾸세요)

문화관광부 사단법인 제141호 한불총02-44호 등재

대한불교 (禪) 선종 총림, 포항칠포 대원사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칠포리 607번지 전화 : 054)261-7777 / 팩스 : 054)261-6119

## 삼사순례 및 방생기도도량 감로법비의 성지 동해사

세계최대 약사여래와불 조성불사중

▶ 낙산사 10분 소요 ▶ 대형주차장완비  
휴휴암 15분 소요 ▶ 점심공양 무료제공  
불탑사 10분 소요 (예약에 한함)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학포리 156번지 법비오는 곳 동해사  
033)672-2900